



‘양학선’ 이름으로 체조 ‘첫 금’ 땃다

도마 평가전서 독자 기술 ‘양학선’ 완벽 구사

오는 27일 개막하는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광주출신 양학선(20·한체대)이 출국 전 마지막으로 치른 평가전에서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양학선은 지난 7일과 9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도마 평가전에서 완벽한 기술을 구사하며 평균 16.500~16.600점대의 고득점을 올렸다.

그는 조성동 대표팀 총감독을 비롯해 국내 심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독자 기술인 ‘양학선’(난도 7.4점)과 스카라 트리플(난도 7.0점)을 연속 시도해 실수 없이 마쳤다.

올림픽 리허설로서 외국 심판들의 덫세를 고려해 국내 심판들이 간간하게 제쳤었음에도 양학선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당시 받았던 점수(16.566점)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조 감독은 11일 “양학선이 가장 관건인 차지 동작에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표 선수 중에서도 현재 컨디션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양학선의 신체 리듬이 일주 간 격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점을 계산해 금주까지 남은 두 차례 평가전에서 페이스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런 다음 16일 런던으로 출국,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치르는 연습에서는 컨디션을 조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AP통신은 최근 이 종목 메달 전망에서 양학선 대신 루마니아의 플라비우스 코크지(26)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으나 코크지가 올해 유럽선수권대회 도마 금메달리스트인데다가 국제 대회에 자주 출전한 베테랑으로 심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크지의 최고 점수는 16점대 초반으로 양학선에게 0.4점 이상 뒤진다.

1000분의 1점 차이로 메달 색깔이 갈리는 체조에서는 상당히 큰 격차다.

결국 기술에서 앞선 양학선이 이번 올림픽에서 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면 여유 있게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대한민국 대표선수단 결단식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이기호 선수단장을 비롯한 대표선수들이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며 피아티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金10-10위 목표…“가자 런던으로”

런던 올림픽 출전 한국 선수단 결단식

(LA) 대회 이후 최소 수준이다.

이번 대회 개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기수는 선수단에서 최고령·최장신인 핸드볼 대표팀의 윤경신(39·203cm)이 맡는다.

오는 27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런던 올림픽에 파견되는 국가대표 선수단은 11일 서

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최광식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열

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 국가별 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노리는

우리 선수단은 총 22개 종목에 출전한다.

임원 129명과 선수 245명으로 구성됐다.

총 26개 종목 가운데 농구, 테니스, 승마,

카누에선 출전권을 따지 못해 선수 수로는

210명이 출전했던 1984년 로스앤젤레스

라”고 당부했다.

최광식 장관은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힘을 믿는다”며 “선수들 모두 자신감을 앞세워 전진해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최고의 꿈을 안고 투지로 불태우 선수들을 응원한다”며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但从 넘어 도전과 성취의 무대다.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기호 선수단장의 답사에 이어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이 단장에게 선수단기를 건넸다.

선수단 본진은 20일 런던으로 출발해 브루넬대학에 머물면서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한다.

한편 이날 식후 행사에서 인기 가수 아이유와 그룹 뮤라세션의 갤럭시팀을 활용한 영상으로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

은·동메달리스트 혜택 늘린다

월 수령액 45만원→75만원, 30만원→52만5천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2 런던 올림픽에 나서는 태극전사들의 사기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지원책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우선 금메달 중심이던 선수연금 제도를 손질해 이번 올림픽부터 은·동메달 수상자가 받는 연금과 연금점수를 대폭

졌다.

종전 은·동메달리스트는 각각 매월 45만원(30점), 30만원(20점)을 받았지만 이번 런던올림픽부터 은메달 75만원(70점), 동메달은 52만5천원(40점)으로 월 수령금액과 점수를 상향 조정해 금메달과의 격차를 줄였다.

금메달리스트가 받는 혜택은 종전(월 100만원·90점)과 같다.

기존 올림픽에서 은·동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는 월정액 수령자에 한해 점수를 재산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비장애인 선수 164명, 장애인

선수 92명이 추가로 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체육공단은 또 런던올림픽 대비 특별 지원금을 57억1000만원에서 69억1000만원으로 12억원 늘렸다. 이 돈은 런던 브루넬대학에 마련될 한국 선수단의 허브캠프 운영비로 쓰인다.

/연합뉴스

2012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공식 출범하는 자리에서 ‘10-10(금메달 10개+종합 10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졌다.

오는 27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런던 올림픽에 파견되는 국가대표 선수단은 11일 서

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최광식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열

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 국가별 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노리는

우리 선수단은 총 22개 종목에 출전한다.

임원 129명과 선수 245명으로 구성됐다.

총 26개 종목 가운데 농구, 테니스, 승마,

카누에선 출전권을 따지 못해 선수 수로는

210명이 출전했던 1984년 로스앤젤레스

(LA) 대회 이후 최소 수준이다.

이번 대회 개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

장하는 기수는 선수단에서 최고령·최장신

인 핸드볼 대표팀의 윤경신(39·203cm)이 맡

는다.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를 통해 올림픽에

데뷔한 윤경신은 2000년 시드니, 2004년 아

테네, 2008년 베이징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

째 올림픽 출전이다.

박용성 회장은 결단식 인사말을 통해 “올

림픽은 국민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5천만 국

민이 하나로 통일하는 무대”라며 “1948년 런

던 대회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전

한 지 64년 만에 나서는 대회인 만큼 큰 의미

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민 여러분도 선수들이 최선

을 다하는 모습에 응원의 목소리를 높여달

7월 14일(토)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앙상블(가수진/호프스/엔터테인먼트) 7월 14일(토)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07:00~09: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0:00~12: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3:00~15: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6:00~18: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20:00~22: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23:00~01: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01:00~03: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03:00~05: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05:00~07: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07:00~09: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09:00~11: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1:00~13: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3:00~15: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5:00~17: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7:00~19: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9:00~21: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21:00~23: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23:00~01: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01:00~03: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03:00~05: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05:00~07: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07:00~09: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09:00~11: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1:00~13: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3:00~15: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5:00~17: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7:00~19: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19:00~21: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21:00~23: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23:00~01:00

▲광주희망토요아이hood 7월 14일(토) 01:00~03:00

▲광주희망토